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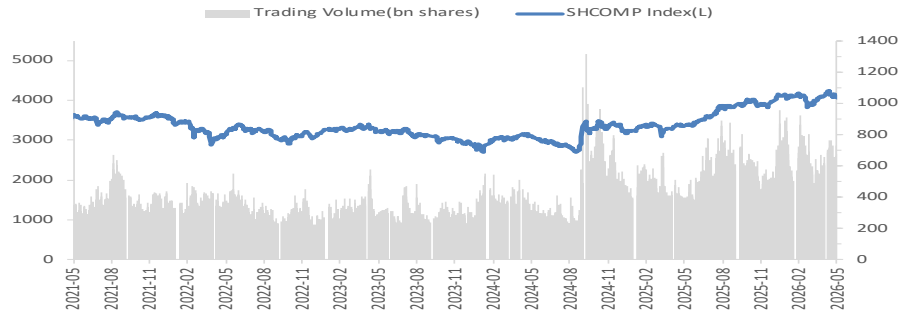
미니맥스 과창판 상장 추진, A주 지수의 표본 조정안 발표

5월 A 주 시장은 “월초 상승, 월말 하락, 극심한 구조적 괴리”라는 패턴을 보였다. 전체 시장이 완만한 조정을 겪었지만, 성장주들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초과수익을 달성했다. 5월 상해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6% 하락한 4,068.57pt 를 기록한 반면, 창업판 (ChiNext), 과창판(STAR 50)은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 일평균거래대금은 RMB3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섹터 차원의 구조적 리밸런싱이 자금 이동을 주도했고, 시스템적인 자본 유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공 행진하던 기술주들은 5월 말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반면, 소비재 섹터는 추세를 거스르는 반등을 연출했다. 6월 뮤추얼 펀드의 잠재적인 성과 벤치마크 조정, 기말 성과 평가로 인한 스타일 리밸런싱까지 더해져 5월의 성장 추세가 향후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월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 총량과 강력한 신성장 동력” 패턴을 이어갔다. 제조업 PMI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50.0을 기록해 내수 회복 둔화와 명백한 대외 수요 부진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산업 고도화의 뚜렷한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첨단 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PMI 는 플러스 구간을 유지했고, 새롭게 부상하는 AI 와 첨단 컴퓨팅 파워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냈다.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며 경제 및 자본 시장의 핵심 지지대가 되었다. 미니맥스는 과창판 상장 지도를 시작했고, Unitree Robotics 는 과창판 IPO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SpaceX 가 IPO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하드테크 및 핵심 기술 자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월 2~5일 열린 Computex 2026을 계기로 Nvidia 의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와 Arm 기반 PC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IPO 집중과 6월 FOMC 회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AI 컴퓨팅 파워와 반도체 장비 등 고성장 섹터는 이익 성장의 가시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분산 투자를 권고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과열 테마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하드테크 및 핵심 기술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조정 시 신규 AI 아키텍처,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자립화 관련 성장 구간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발간일 2026.06.04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